

43번째, 농기구이야기

짐을 실어 나르는 ‘발구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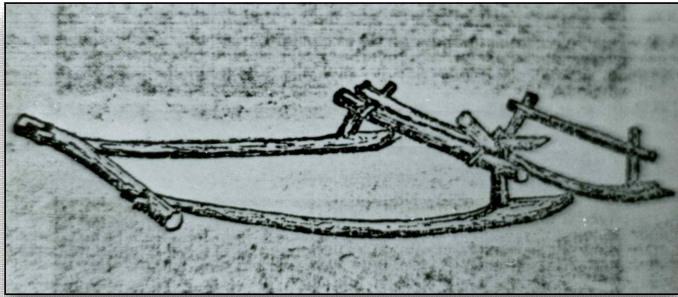


- 편집 및 발행 :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
- 발행일 : 2011.10.1
-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,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.

1. 발구의 개념과 역사

발구는 산골에서 나무를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는 썰매와 비슷한 연장이다. 서까래와 같은 통나무 두개를 ‘발고’라고도 하는데 달구지의 전신이라고도 할 원시적인 연장이다. 『훈몽자회』·『역어류해』·『방언류석』·『한한청문감』에서는 ‘발외’라고 하였으며 한자음으로는 파리(把犁)라 쓰고, 한문으로는 시상(施床)으로 적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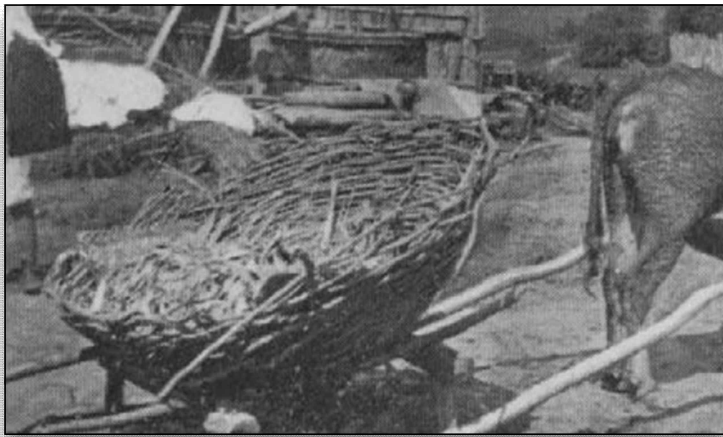
발구에 대한 첫 기록은 1485년에 나온 『경국대전(經國大典)』에 보인다. ‘발외’ 항목에서 “곡차 곱장 술뢰 혹 동차 강 발외 오”라 새겼다. ‘곱장 술뢰’는 곱은 수레라는 말로 발구의 옆모습이 손가락처럼 휘우듬하게 곱은 것을 이른다. 강은 중국 사람들이 긴 나무 양 끝에 물건을 걸고 어깨로 메어 나르는 채를 가리킨다.



2. 발구의 형태

발구는 사다리 모양으로 위는 좁고 아래 쪽이 벌어지도록 연결시킨 모양인데 앞쪽에는 가로대(멍에)를 박아서 소 등에 얹으며 뒤의 양쪽에는 짧은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역시 가로대(달애)를 붙였다. 이 달애는 실린 물건이 흘러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. 그리고 땅에 닿는 달애의 아랫부분은 지면에 평행이 되도록 깎아준다. 이렇게 해야만 저항이 적어 눈이나 얼음 위에서 잘 미끄러진다. 발구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길이는 3~4m이며, 너비는 1m 내외이다. 경우에 따라서는 달애에, 두개의 바퀴가 달린 작은 달구지를 연결시켜서 끌기도 한다.

달구지의 사면에는 낮은 널벽을 세운다. 무게는 무겁지 않으나 부피가 큰 것을 실을 때에는 달애에 또 다른 발구를 잡아매어 운행하기도 한다. 또한 ‘똥뒤’라고 하여 긴 통나무 위에 짧은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Y자 모양으로 한쪽이 벌어진 틀을 박아 달애에 연결시키기도 한다. 앞이 벌어진 부분에는 물건이나 곡식이 담긴 광주리 따위를 얹는다.



©국립민속박물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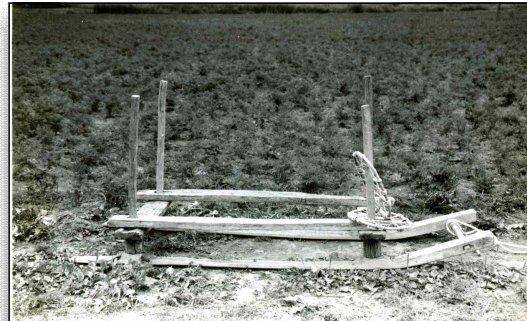
3. 발구의 용도

발구는 대체로 얼음이 깔리거나 눈이 깊어서 달구지를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많이 쓰이는데, 함경도를 비롯한 평안도의 산간지대에서 많이 볼 수 있다. 무게는 20kg 내외로 한번에 100~200kg의 짐을 실을 수 있다.

발구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눈발구와 땅발구로 나뉘고, 형태에 따라 외발구와 쌍발구로 나뉜다. 쌍발구는 외발구에 분리가 가능한 뒷채를 덧붙여 길게 한 것인데, 뒷채를 분리하면 외발구가 된다. 발구의 구조는 가늘고 긴 자연목을 구부려서 만든 첩대에 뒷부분은 물건을 싣는 곳인 세장과 발구채를, 앞부분에는 소의 목덜미에 거는 멍에를 연결한다.



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 발구를 이용하여 나뭇가지를 운반하였다.
 ©동아일보, 1989.2.11.



눈 내린 산악지역에서 발구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모습(좌)
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겨울철에 신발 위에 신고 다니는 덧신인 설피가 발구에 걸쳐있다(우)



중국 연변에서는 일소를 길들이기 위하여 발구위에 나무를 얹어 훈련시킨다. ©국립민속박물관

【참고문헌】

국립국어원.

김광언, 『한국의 농기구』, 문화재관리국, 1969.

한국농업기계학회, 『한국농기구조감』, 2001.

『한민족역사도감 생업』, 국립민속박물관, 2008.